 국토교통부		<b>보 도 자 료</b>	
		배포일시	2018. 10. 12.(금) / 총 3매(본문3, 참고0)
담당 부서	해외건설 지원과	담당자	·과장 이명섭, 사무관 김목진, 주무관 백승현 ·☎ (044) 201-3527, 3534
보 도 일 시		2018년 10월 15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0. 15.(월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## 김현미 장관, 중동으로 15일 출국

### UAE·쿠웨이트·카타르서 스마트시티·신공항·지능형 교통체계(ITS) 협력 논의

- 김현미 장관이 UAE, 쿠웨이트, 카타르 등 중동 3국을 방문한다.
  - 15일부터 19일까지 4박5일간 이뤄지는 이번 방문에서 김 장관은 스마트시티, 신공항, 지능형 교통체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융·조달·기술협력을 포괄하는 전방위 건설협력 및 수주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.
  - 김 장관의 이번 방문에는 해외인프라·도시개발 지원공사(KIND), 수출입은행 등 해외건설 정책금융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인천공항공사 등 인프라 공기업 및 건설·인프라 분야 민간 기업들로 구성된 지원단이 동행하며,
  - 현지 진출기업과 지상사 등이 참석하는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해외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우리 기업들의 현안 해소도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이번 방문에서 예정된 주요 일정 및 현안은 다음과 같다.

#### ① (UAE) 3월 정상외교 후속, 중점 프로젝트 추진상황 점검

□ 먼저 경유지인 UAE에서는 금년 3월 문재인 대통령 방문 시

UAE와 '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'를 형성하는 등 양국 간 협력 관계가 우리기업들의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현지에 진출한 기업들과 함께 세부적인 진출 전략을 논의한다.

-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발주가 예상되는 주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UAE측의 현지화 기여수준 평가강화(ICV 제도)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.

\* ICV(In Country Value): 현지인 고용, 현지 하청업체 사용비중, 현지법인 투자액 등에 따라 입찰점수를 부여하는 제도(아부다비 석유공사 등 시행)

## ② (쿠웨이트) 스마트시티, 신공항 등 고부가가치 분야 성과 확산

- 세계 6위의 원유매장량을 보이는 자원부국 쿠웨이트는 해외건설 누적 수주 세계3위(약 486억불)이자 최근 유가상승으로 건설·인프라 시장 확대가 전망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.

- 정부 차원의 사업발굴과 협의·지원을 통한 스마트시티 첫 수출 사례인 '압둘라 신도시'와 역대 최대 규모의 공항운영사업(쿠웨이트 공항 제4터미널) 수주 등 그간의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으로 성과 확산이 기대된다.

\* (압둘라 신도시) 수도 30km 인접지역에 4만 세대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위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함께 본 사업 대비 LH중심의 컨소시엄 구성 중(약40억불)

\*\* (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) 인천공항공사에서 위탁운영권 수주, 12,760만불 규모로 공사의 해외사업 누적수주액 9,344만불을 뛰어넘는 최대 단일사업

- 김현미 장관은 쿠웨이트 주택부 장관(서비스부 장관 겸임), 공공사업부 장관 등과 면담을 통해 압둘라 신도시 건설, 쿠웨이트 공항운영 등에 쿠웨이트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유도하여 성공적 추진을 돕고,

- 향후 지속 추진될 국가철도망·메트로 투자개발 사업(약 180억불, '19.下입찰예상) 등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우리기업 참여 방안과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할 계획이다.

- 또한, 쿠웨이트 국왕의 관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‘자베르 코즈웨이 (36.14km 해상교량 건설현장, 현대건설)’ 공사현장과 8월부터 운영 중인 쿠웨이트공항 제4터미널을 방문하여 시공상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를 격려할 예정이다.

③ (카타르) 2022월드컵 프로젝트와 연계한 첨단 인프라 분야 협력



-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준비 중인 카타르와는 메트로·신공항 등 건설 프로젝트와 지능형 교통체계(ITS) 등 연계 사업을 중심으로 석유 플랜트 중심의 기존 진출분야를 다변화하기 위한 협력외교 활동을 수행한다.

- 김현미 장관은 압둘라 알 타니 카타르 총리에방 및 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도하 메트로 그린라인(약 10억불, 입찰평가중), 하마드 국제공항 확장(약 80억불, 4분기 입찰) 등에 우리기업 참여를 지원하고,

- 스마트시티, ITS 등 첨단 인프라 분야의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공동사업 발굴, 기업 간 투자 등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.

- 사우디 등과의 단교사태로 인한 우리기업의 애로사항도 고위급 채널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.

- 국토부 관계자는 “해외건설 주력시장인 중동권역 수주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최근 유가상승과 중동국가들의 탈석유화 정책을 활용한 전략적인 진출지원을 지속하겠다”고 밝혔다.

  <p>광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p>	<p>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김목진 사무관(☎ 044-201-352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
--	---